

“협회와 회원사가 공동 목표 향해 R&D에 역량을 집중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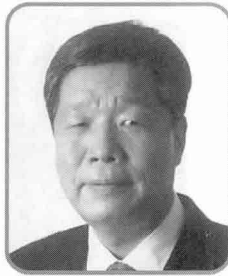
희망의 무자(戊子)년 새해를 맞아 회원사 여러분과 광학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광학세계 지면을 빌어 새해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함께 국내외에서 갖가지 사건과 사고가 잇달았지만 한미 FTA협상 타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코스피지수 2000 돌파, 수출 3천670억 달러를 포함한 무역규모 7천억 달러 시대를 열며 한국인의 자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선진국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광학산업도 그동안 괄목한 발전을 이룩했지만 아직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 변화는 극복의 대상이고 이를 넘어설 때 우리는 성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학산업은 미래 산업이며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첨단산업입니다. 더욱이 급속히 발전해 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광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며 정밀기계, 전자, 반도체, 항공, 자동차, 금형, 의료 및 방위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산업에서 핵심기술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원사는 첨단산업의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위상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세계 광학산업을 선도해 나갈 때까지 우리 모두 뜻을 모으고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광학산업이 포함된 차세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 R&D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여건을 만든 바 있습니다. R&D 예산도 꾸준히 늘려 올해는 10조원의 예산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협회는 광학산업을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인식하여 집중육성하고 첨단 R&D사업을 도출하여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건의와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올해에도 광학산업의 원천 기술인 정밀광학 기술인력 양성사업, 한·일 기술협력사업, 국내외 전문전시회 개최 및 공동 참여 사업 등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협회는 국내 광학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그날까지 회원사를 돕고 광학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점차 경기 회복세로 간다고 하지만 금년 한 해 역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기업체질 개선 및 기술개발 등에 힘을 모은다면 큰 발전과 성과를 일궈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신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신정부는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기 를 기대하며, 우리 광학인 모두의 소망이 이뤄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장 이 중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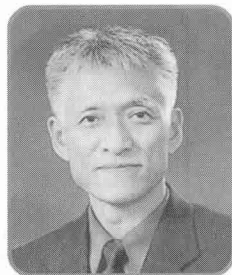
산학 간 협력 활성화를 기대하며

2008년 새해를 맞아 광학세계 독자 모든 분들께 건강과 성취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광학기협회 회원사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광학산업 분야의 산업 기술 로드맵을 선도적으로 만들고, R&D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광학기협회 회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자에 이르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대기업과 관련된 광학부품, 광학기기의 생산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비록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기술적, 산업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국을 비롯한 후발 주자들의 저임금 등으로 큰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 확충, 과감한 투자, 창의적 사고, 부단한 노력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 중소기업들이 여럿 있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계 내에서 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산업계와 학계의 상생적 협력도 또한 중요합니다. 학계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고 산업계는 졸업생에 대한 일자리와 연구과제를 학계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서로 도움이 됩니다.



한국광학회는 산학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학회 회원 중에는 국제적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하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광학회의 홈페이지에 전문가 DB가 구축되어 있고 용이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산업체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교수, 학생, 연구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광학제품 소개란도 만들었습니다.

2008년에도 한국광학기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회원사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광학회도 여러분과 함께 국내 광학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광학회 회장 김창민